

소비자

올 김장비 20만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올해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16%가량 증가한 20~25만원으로 예상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장현)는 "최근 광주 양동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김장 구입비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해 보니 올해 김장비용이 2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aT 광주전남지사 시장이 마트보다 18.6% 더 저렴

배추와 무 등 13개 김장관련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양동시장 20만453원, 대형유통업체 24만615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양동시장 기준 전년(17만2910원)보다 15.9% 상승한 것이다.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이 대형 유통업체 보다 18.6%(4만5705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 기준으로 배추(74.2%)와 무(71.4%), 대파(68.2%), 쪽파(147.1%) 등은 전년보다 대폭 올랐다. 반면 고춧가루(-19.2%), 굴(-2.7%), 새우젓(-28.0%)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동시장에서 배추(20포기)를 구입할 경우 지난해는 3만4444원이었으나, 올해는 6만원에 달했다. 성장현 지사장은 "광주·전남지역 김장철인 12월 상순에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18만~19만원(양동시장 기준)선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기웅기자 song@

“너무 싼 휴대폰은 개인정보유출 미끼”

이동통신 3사 ‘온라인 가입 피해주의보’ 발령

KT 등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가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척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픈마켓·카페·공공구매 등을 통한 온라인 가입을 조심하라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픈마켓 등이 개별 가입 정보입력을 유도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가기만 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팔지 않는 소위 '먹튀'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사례는 인터넷 오픈마켓·카

페·공공구매 사이트 등 상대적으로 가격 조건이 좋은 판매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려는 소비자들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마켓·카페·공공구매 등을 통해 개별 가입 정보 입력을 유도해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판매자 약속 불이행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

“온라인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kt 공식 온라인 가입망의 오픈마켓, 카페/공공구매 등을 통해, 개별 가입 정보 입력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판매자 약속 불이행 등과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카페/공공구매 등에서 휴대폰 구매시, kt 공식 온라인 신청서를 확인 후, 가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가입망식은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온라인 가입망식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객님의께서는 휴대폰 구매시 kt 공식 온라인 가입망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 판매처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는 각사의 공식 온라인 가입신청서와 양식이 같은지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은 "각 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가짜 가입신청서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17만원 갤럭시S

3'가 등장하는 등 보조급 경쟁이 치열해진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신시장 과열 경쟁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중한 개인정보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인 고객들도 스스로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거 하나면 요리걱정 끝~

삼성전자, 180가지 자동요리 '스마트오븐' 출시

삼성전자는 열풍(熱風)·그릴·스팀·찜·건조 등 다양한 조리 기능을 갖춰 180가지 자동요리가 가능한 '스마트오븐'을 출시했다. 삼성 '스마트오븐'은 조리실에서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해 화덕이나 퓌레기로 조리한 것처럼 음식의 깊은 맛을 살릴 수 있다. 오븐에서 레인지 요리를 할 때 별도 선반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리실 바닥을 고주파가 투과되는 세라믹 재질로 만들었다. 기름없이 열풍으로 튀김을 만들 수 있어 저지방의 단백하고 맛있는 튀김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용량은 32ℓ이며 색상은 그레이데이션 블랙, 블랙, 화이트, 실버 등이 있다. 출고가는 55만~85만원선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획득

캐리어에어컨, 상업용 '에코그린 에어컨' 출시

캐리어에어컨은 15일 국내 최고 에너지 효율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중대형 상업용 '에코그린 인버터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은 강력한 전력 제어와 높은 에너지 절감 기술로 최고 수준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백터제어인버터 시스템'과 작동 효율이 높은 PSMS 모터, 오존 파괴 지수가 제0(0)인 환경친화 냉매(R410A)를 채용했다. 또 곰팡이와 냄새를 제거하는 셀프 크리닝 자동건조와 자동 설치 확인을 통한 설치 오류 방지, 오일 회수를 통한 압축기 수명 연장, 에너지 절약 운전 표시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제품으로는 처음 탑재했다.



캐리어에어컨 관계자는 "이 제품은 올해 12월부터 개성·시행되는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맞춰 에너지소

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렉서스 올 뉴 LS·토yota 벤자 출시기념

한국토요타, 30일까지 무상점검 서비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올 뉴 LS와 토요타 벤자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캠페인을 벌인다. 렉서스 구매 후 3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동절기 운행에 대비해 배터리 상태, 타이어 상태, 에어컨 필터 등을 포함한 12가지 항목을 무상 점검해 주며 12V 배터리와 엔진

오일 교환 시 부품과 공임을 20~30% 할인해 준다. 토요타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12가지 항목 무상 점검과 함께 브레이크 패드, 에어컨 필터, 와이퍼 리버 교환 시 20%의 부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브랜드세일에 사은대 축제까지

지역백화점, 22일까지 특가판매 고객유혹

지역 백화점들이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말부터 다양한 유명 브랜드 세일 및 대형 실속행사와 사은대축제를 펼친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조창현)는 오는 22일까지 겨울 패션 위크를 열어 아우터 및 패션소품을 특가 판매한다. 주말 3일간 각종에서는 리본 오리털 패딩(30매) 25만원, 미세스 하프모직재킷(30매) 9만9000원, 쉬즈미스 모직 하프코트(50매) 7만9000원, 메트로시티 모직장갑(30매) 3만5000원, 블랙야크 남·여 구스다운(50매) 17만원 등을 판매한다. 패션스트리트에서도 신규&재단장 오픈 1주년 축하상품으로 FRJ 패딩점퍼(300매) 3만원, BSX패딩야구점퍼(50매) 5만

원, 애드록 야상점퍼(50매) 6만9000원, 등도 구입할 수 있다. 1층 시즌이벤트홀에서는 울시, 슈퍼리어, 핑골프, 활라골프 등이 참여하는 골프웨어 대전이 열린다. 여성 아르마니진에서는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5000원 또는 아이패드 가방을 준다. 각종 행사장에서는 세라 속내화 특집, 에스까다 특집전, 키텔링 특가 상품전, 베네통 게스키즈 특집전, 대호 온돌나라 특집전 등이 열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유명 브랜드 세일로 손님들 유혹에 나선다. 여성의를 프리벨런스, 에스칼리에스 포츠 윌라, 유·이동 리바이스 키즈, 캔 키즈 등이 30%세일을 하고, 탠디, 소다, 닥스 여성의류 우바, 후라밍고, 캐리



(주)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 카이아크린에서는 추운 겨울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머스트해브아이템 야상점퍼를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스노트, 등은 20% 세일에 들어간다. 8층 이벤트홀에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6~22일까지 '김치냉장고 특별기획전'을 전개해 담채, 삼성 지랜드 야삭, LG 디오스 등 인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김치냉장고 진열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삼성·LG구매시 7.5% 상당 롯데상품권 증

정과 김치통 및 믹서기를 증정하는 일석이조의 쇼핑찬스를 마련했다. 지하1층 행사장에서는 슈퍼리어, 핑, 울시, 이동수 등 인기 골프웨어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골프웨어 겨울 상품 특집전'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은행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 불만 커

은행 등에서 대출받고서 만기 전 중도상환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

(87건)로 가장 많았고 '상환수수료 설명부족'(22.7%, 65건), '수수료 부담정규'(16.4%, 47건)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됐다'는 응

답이 53.7%(537명)에 불과했다. 담보대출 경험자의 72.7%는 대출 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은행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설명 부실, 조사를 해보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

대출 1.62%, 전세대출 1.42%였다.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 대비 13% 줄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14.8% 늘어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필뉴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New Business/Success), '태화다방' (Tae-hwa Coffee), '다도젓갈' (Seafood), '용봉보양탕' (Yong-bong Tonic Soup), '죽향공인중개사' (Real Estate), '홍서각' (Hong-seo-gak), '정열식당' (Jeong-yeol Restaurant), '정원일식' (Jeong-won Japanese), '별안경콘택트' (Byeong-an Contact Lens), '성진장묘(묘지전문)' (Sung-jin Cemetery), '30년 식당' (30 Years Restaurant), '(주)산농천삼수' (Sannongcheon San-su), '웨버하우스' (Webber House), '가마솔나주곰탕' (Gamasol Naju Gomtang), '수정이네맛자랑' (Sujeong-i-ne Mat-jarang), '메트로폴리탄이용원' (Metropolitan Iyongwon), '로알다방' (Lo-al Da-bang), '귀빈이용원' (Gwi-bin Iyongwon), '리폼·우수선(명품패션)' (Reform/Usu-seon), '키친수다' (Kitchen Soda), '광주화랑' (Gwangju Hwarang), '신신예술의집' (Shin-shin Art House), '일성공인중개사' (Il-seong Real Estate), '아송실업' (A-song Real Estate), '장터백반' (Jang-teo Baek-ban), '와따네치킨' (Wa-ta-ne Chicken), '자연다방' (Jae-yeon Da-bang).